



이세진 혜전대 총장(왼쪽부터),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 박병완 아주자동차대 총장 /아주자동차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한국영상대·혜전대, 전문대 혁신 맞손

“평생직업교육 모범 사례 될 것”

교육부 혁신지원사업 선정 대비 3개 대학 인프라·노하우 공유

아주자동차대학, 한국영상대학교, 혜전대학교 등 세종·충남 소재 3개 대학이 19일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부의 올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유형(후진학선도형) 신규 선정에 대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영상대 대학 본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박병완 아주자동차대 총장,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 이세진 혜전대 총장과 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세 대학은 협약에 따라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운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평생교육과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성인학습자 요구에 부응키로 했다.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지원사업’은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체제 강화를 위해 지역 소재 전문대들이 직업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이다. 앞으로 세 대학은 각 대학이 가진 인프라와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강생 모집과 프로그램 홍보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박병완 아주자동차대 총장은 “협약을 계기로 3개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교육인프라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힘을 모은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미래 직업분야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지역 산업체와 기관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여 충남·세종이 평생직업교육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후진학 선도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3개 대학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순천향대, 모든 수업 온라인 원격강의

교육의 질 저하되지 않도록 총력

순천향대가 2289개에 이르는 ‘온라인 원격강의’로 모든 수업을 진행한다.

22일 순천향대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이 지난 16일 개강했지만 순천향대는 1주일을 늦춰 23일 봄학기를 연다. 온라인 강의를 일시적으로 강의 전체로 확대하면서, 불안한 전산 시스템과 온라인 강의 질적 저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국내 대학은 교육부 규제에 따라 동영상 강의는 전체 수업의 20% 이내로 꾸렸다.

대학 관계자는 “순천향대만의 재미 있는 강의개발을 통해 쌍방향 소통이



지난 20일 남윤영 순천향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교내 공학관 연구실에서 1학기에 개설된 ‘컴퓨팅이해’ 전공과목 수업을 ‘유튜브 라이브’로 리허설 하면서 타블렛을 이용한 판서를 테스트하고 있다. /순천향대 제공

가능하고 학생들의 수시 질문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일방적인 강의보다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실한 강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hnj@

호서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선정

2015년부터 6년 연속 지정

호서대가 교육부로부터 6년 연속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는 고등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해 유학생 질 관리 및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호서대는 지난 2015년부터 6년 연속 교육 국제화 역량 필수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율 및 중도 탈락률을 비롯해 핵심 여건 지표인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의 기준에 충족했다. 이번 인증은 2022년 2월까지 2년간 유효하다 /이현진 기자

수시모집 연기 가능성 ↑ 수능 일정 순연도 가시화

교육부 대입 일정조정 등 검토 중간·기말고사 예정대로 진행 한교협 “수능 한달은 늦춰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교 개학이 5주(4월6일 개학예정일 기준) 이상 연기되면서 올해 대학 입시 일정 연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대학별 수시모집 일정의 1주일 연기가 유력 검토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정 순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 개학 날짜를 4월6일을 기준으로 대입 일정 조정 등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기존 학사일정대로 진행하자는 측면으로 보고 있으나, 교사 등 교육계에서는 학생 혼란 등이 없도록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시급히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일단 학교별로 치러지는 4월말 중간고사와 7월초 기말고사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방안이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tbs 라디오 ‘김지운의 이브닝쇼’와 인터뷰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일정은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다. (학업)진도를 다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여름방학을 축소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한 상태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으로 실제 중·고·기말고사 일정에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수업일이 한 달 이상 미뤄지면서 물리적으로 중간고사 일정이 어렵다는 교육계 우려가 나오면서 서울시교육청



지난 18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년 교실 앞에 지난해 대입 일정 관련 달력이 부착돼 있다. 3학년 교실의 책걸상은 시험일처럼 분단별로 일렬로 줄지어 배치돼 있다. 개학 뒤에 수업 중 학생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학교측의 조치다. /연합뉴스

의 경우 1학기 중간고사를 과정중심평가로 대체하라고 일선 학교에 권고했으나, 교사 주관이크게 반영되 대입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도 대입에 영향이 있는 고3의 경우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으로 치르는 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석차등급을 내지 않는 예체능 과목이나 고등학교 1,2학년 진로선택 과목 등은 수행평가로 중간고사를 대신하되,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국영수 등은 중간고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조만간 관련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중간·기말고사와 별개로 9월7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대입 수시모집 일정은 1주일 연기 가능성이 크다. 1학기 학생부 마감일은 8월31일로 여름방학이 축소되면 교사들의 학생부 작성 일정도 빠듯해지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올해부터 ‘학생부의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모든 학생에게 써주도록 해 학생부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빨리 정해서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학생부 작성 마감일을 최소 1주 늦추고 이에 따른 수시모집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개학이 4월 중순 이후로 또 미뤄지는 경우 정시모집 연기도 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11월 19일로 예정된 올해 수능 시험 일도 연기가 가능하다. 교수단체인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12월 수능을 주장하고 있다. 교수들은 “코로나 사태가 안정적 통제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소 5월 이후 개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입 일정도 수능을 한 달 연기하고 모든 대입 일정도 최소 한 달간 순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 상태로 수능을 보게 되면 재수생에 비해 제대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재학생에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수능 점수 양극화가 현실화 될 것”이라며 “교육부 구상대로 단순히 4월6일 개학 이후 학생용 마스크도 부족하고 학교 차원의 관리가 어려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집단감염이 재연된다면 최악의 상황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중앙대-한수원, ‘에너지신산업’ 공동추진

연구개발협력·비즈니스 모델 공유

중앙대가 20일 서울캠퍼스 총장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 정재훈)과 ‘에너지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및 기술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상규 중앙대 총장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지능형 에너지신산업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Value Chain Innovation’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중앙대 지능형 에너지신산업 교육연구단(단장 박세현)과 한수원은 ▲지능형에너지 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자문 ▲에너지신산업 핵심연계기술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모델 공동 개발 등의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진행할



박상규 중앙대 총장(오른쪽)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대

예정이다.

중앙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중앙대의 미래 에너지신산업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연구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대는 지능형 에너지신산업 교육연구단을 통해 에너지 자립, CO2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신산업 생태계의 공급-소비 체계를 혁신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서강대

융합기술 특화인력 양성

서강대학교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하서강대MOT)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다.

이 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기술 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주도할 핵심인재 양성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혁신기술의 사업화 전문인력 배출이 목표다.

서강대 MOT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지난 8년 연속 최우수 기술경영전문대학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교육 및 연구 노후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등 여러 디지털 첨단기술을 융·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